

쌀 한 가마니 20만원 약속 지켜지나

<80kg>

산지쌀값, 11월 들어 2회 연속 상승에도 역대 최저 수준 여전

12월에도 쌀값 상승 전망...생산량·도정수율 감소 등 영향

산지쌀값이 다소 상승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가 약속한 '쌀 한 가마니 20만원' (80kg)이 올해는 지켜질지 주목되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1년 전(80kg당 19만 8620원)보다 무려 7.3%(1만 4536원) 떨어지는 등 '바닥을 찍은' 데다, 정부가 연내 발표한다는 쌀 산업 대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쌀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시그널'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쌀값 20만원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전망도 나온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산지쌀값(20kg·정곡)은 지난달 25일 기준 4만 6021원으로 전월(11월 15일) 대비 303원(0.7%) 상승했다.

이는 수확기(10~11월) 기준 지난 2020년 11월 5일 전회보다 0.9% 오른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산지쌀값은 지난달 15일(0.1%)과 25일(0.7%) 등 2회 연속 올랐지만 역대 최저 수준은 여전하다.

실제 올해 10~11월 평균 산지쌀값은 4만 6065원으로 전년(5만 1290원)보다 10.19% 낮았고, 5년 전인 지난 2019년(4만 7003원)보다도 2% 낮은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코로나19, 국제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여파로 생산비는 증가했음에도, 쌀값은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쌀값 상승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적은 생산량'과 정부가 연내 발표할 것이라는 쌀산업 대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꼽힌다.

올해 쌀 생산량은 358만 5000 t, 여기에 조정 현백률 90.4%를 적용하면 실제 쌀 생산량은 348만 8000 t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10년 간 쌀 생산량이 가장 적었던 지난 2020년(350만 7000 t)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생산량이 적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다보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또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가운데, 2024년산 햅쌀 20만 t 시장격리로 공급량을 더 줄였고,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들을 대상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히면서 현지에서는 '올겨울 겨우먹기'로 저가에 쌀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암군의 한 농민은 "쌀값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쌀 값에 쌀을 팔지 않고 쌀을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 오는 12월까지 쌀값이 지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정보 '쌀 12월호'에 따르면 12월 쌀값이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향후 수확기 쌀값도 '강세'로 전망했다. 올해 최종 생산량 감소 및 도정수율 감소, 정부의 수확기 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도.

전남지역 농협 통합RPC 관계자는 "이미 너무 낮은 산지쌀값이 정부가 약속한 20만원 등 정상화되기까지 오르는 것이 맞고, 일정 수준까지 오르기 전에는 벼를 팔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는 지난 29일 농협경제지주 전남본부와 '광주전남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보해는 광주와 전남 22개 사군에서 생산된 쌀 210t(10kg 기준 2만1000포)을 구매하기로 했다. <보해양조 제공>

보해양조, 광주·전남 쌀 2만1000포 구매 협약 체결

<10kg 기준>

농협 전남본부와 5억원 상당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지난 29일 농협경제지주 전남본부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김중진 보해양조 센터장, 편지형 전남농협 부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및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해는 이날 전남농협으로부터 광주와 전남 22

개 사군에서 생산된 쌀 210t(10kg 기준 2만 1000포)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약 70만 명이 하루 3끼를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이며, 5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번 협약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 지역의 우수한 농작물로 보해 복분자주, 매추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온 보해양조는 지난 8월 '자랑스러운 전라남도 인증'으로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보해양조는 지역 농민과 함께 성장한 향토기

업으로서 농민들이 활기를 되찾길 바랐다.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함께'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74년 동안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쌀값 불안정에 따른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소독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며 "쌀 구매가 지역 농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골칫거리된 콩대·깻대·고춧대

영농부산물 태우다 산불 위험...파쇄 후 퇴비 사용 '일석삼조'

우리 민족에게 온돌 구들장과 아궁이는 친숙하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 밥 등 음식을 하거나 방을 따뜻하게 데웠다. 이때 땀으로 쓴 것은 보통 산에서 해온 나무였지만, 그 외에도 가을 철 벼를 탈곡하고 남은 짚이나 고추를 탄 고춧대도 유용하게 사용됐다.

짚의 어린 시절 아궁이에 볶고 왕겨를 태우다 얼굴이 달아오를 때까지 빨간 불꽃을 멍하니 쳐다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불멍'의 기원이 아닐까 하는 영똥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수확이 끝난 논과 밭에 추수를 마치고 남겨진 볏짚과 콩대, 깻대, 고춧대 등 이른바 '영농부산물'들이 가득하다. 농촌 들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주로 땀감으로 이용됐던 것들이 인제 와서는 처치 곤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서다. 짚은 퇴비로 잘게 잘라 눈에 흠뻑히거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곤포(물치) 사일리지로 만들면 그만이지만, 논밭에 심었던 콩이나 깨 고추 등을 털고 남은 부산물은 버려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때문이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농작물 수확을 마치고 잘마른 부산물을 현장에서 태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불로 태워 깔끔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타고 남은 재는 거름이 돼 땅을 비옥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예전 땀감으로 혹은 퇴비로 유용했던 부산물들이 이제 말 그대로 쓰레기 처분을 받는 것 같다. 특히나 이들이 산불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불리는 신세이니 격세지감이다. 농산물 수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3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각각 13%로 공동 2위를 차지했

다. 담뱃불로 인한 산불이 5.7%인 점을 고려하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여기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 발생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메탄 등의 온실가스와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해 문제다. 또 병해충 방제 효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영농부산물은 내버려 두기도 그렇다고 소각하기도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소각하지 않고 들녘에서 파쇄해서 퇴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가 이를 시행하는 농가의 수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쇄기 임대사업, 마을 단위 작업 시 무상 대여 등을 하고 있지만, 산불의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의 파쇄 처리는 8.6%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이 콩대·깻대·고춧대 등을 밭에 쌓아놓으면 파쇄전문팀이 현장을 찾아 처리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선 지자체가 파쇄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영농부산물 파쇄처리는 불법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피해와 대기오염 방지 효과가 커 예산 확대 필요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잔소리를 덧붙이자면, 농산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수동적인 파쇄기 대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산불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퇴비로도 사용 가능한 '일석삼조'의 영농부산물 파쇄서비스를 확대하길 바란다.

/bigkim@kwangju.co.kr

전남도, 담수방류 피해 예방 민·관 협의체 개최

전남도는 지난 29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수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염분 피해예방 민·관 협의체를 열고 어업 피해 해방 찾기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사·군 관계자를 비롯한 각 지역 어업인대표 등 29명이 참석, 지역별 저염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협의체 운영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주요 양식 시기에 담수 방류가 어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담수 방류량 및 시기 조정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담수 방류는 필수적이나 시설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속 가능한 양식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인터넷접수
우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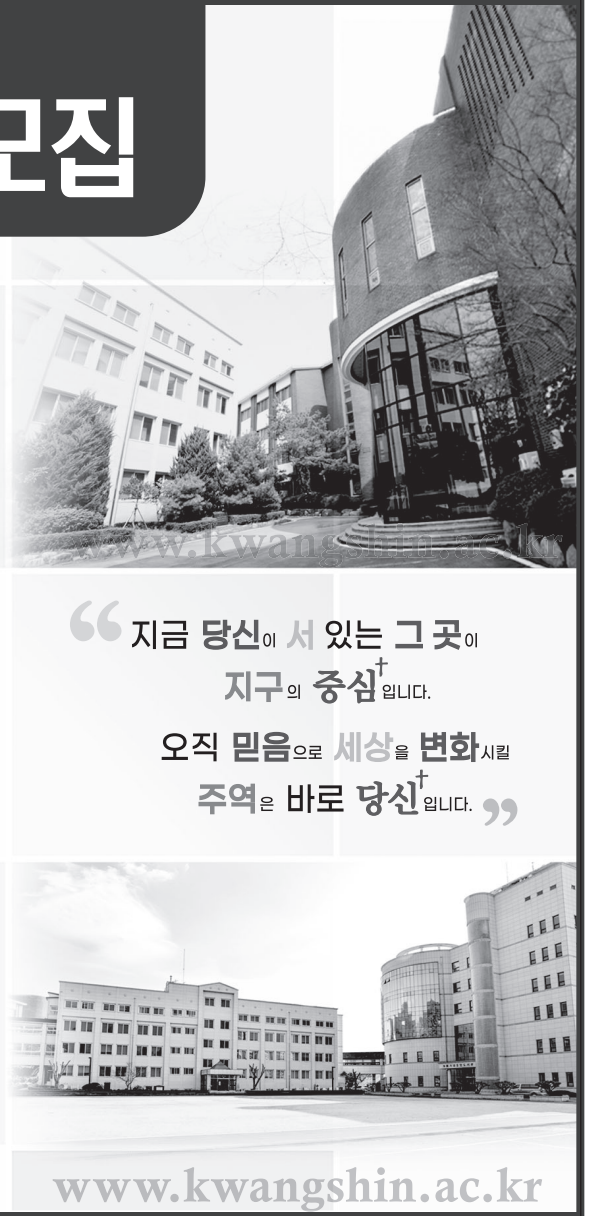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www.kwangshin.ac.kr